



필라코리아 2014 세계우표전시회 68개국 519개 작품 전시...1984년 이후 10년 주기 개최

우정사업본부는 근대우편제도 도입 100주년을 기념해 1984년 최초로 세계우표문화올림픽인 세계우표전시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 주기로 세계우표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한국우정 130주년을 기념해 '필라코리아 2014 세계우표전시회'가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우표는 시대의 흐름과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제작돼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표 수집은 단순히 모으고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표에 담긴 내용을 공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취미활동중 하나다.

국제우취연맹 후원으로 매년 1~2개국 들며 개최

국제우취연맹(FIP)에 가입된 세계 90개국에서 매년 우표전시회를 개최한다. 세계우표전시회는 세계 각국에서 출품한 우표작품을 전시하고 개최국의 고유 문화를 소개·홍보하는 우표 축제의 장

으로서 국제우취연맹(FIP) 후원으로 매년 1~2개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1927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우표전시회는 2013년 호주, 태국, 2012년 인도네시아, 2011년 일본, 2010년 영국 등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관례적으로 나라마다 10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도의 끝자리수가 4가 되는 해에 세계우표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는 우리의 근대식 우편제도가 개시된 1884년을 기념해 100년이 되는 1984년에 처음으로 개최했기 때문이다. 2번째는 1994년, 3번째는 국제우취연맹 요청에 따라 2004년이 아닌 한일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 개최했다. 올해는 4번째다. 필라코리아 2014 세계우표 전시회에는 '사랑·화합·평화'를 주제로 세

계 68개 국가에서 출품한 519개 우표작품(20여만장의 우표)이 전시됐다. 세계 각 국가의 100여 우표판매 부스에서는 나라별 우표를 판매했으며, 한국우정 130주년 기념관, 우정사업홍보관, ITU전권회의홍보관, 우체국문화관, 미래우표관, 인천아시아계 임흥보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관, 초청작품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희귀우표 특별전, 뮤지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우체국 문화여행, 우표로 떠나는 세계여행, 우체국 이야기 등이 진행됐으며, 우표디자이너 사인회, 나는야 우표디자이너, 편지쓰기 강좌, 우표문화강좌, 우체통 만들기, 포토우표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우표 1장에 10억원 세계 희귀 우취자료 전시

세계 희귀우표전시관에서는 세계 최고 가치 희귀우표 10여종이 전시됐다.

‘뒤집힌 제니’ 우표는 1918년 미국 최초로 발행된 항공우표로 인쇄 과정에서 비행기가 거꾸로 인쇄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10억원을 호가한다. 인쇄과정 오류로 인해 생긴 미국의 24센트 제니 100장 전지우표는 1918년 5월 14일 Robey이 워싱턴DC에서 구입했다. 이후 미판매된 나머지 전지 우표는 폐기처분됐다. 일주일 후 필라델피아 우취인 Eugene Klein이 1만5천 달러에 구입해 Green에게 2만 달러에 되팔았다. 현재 이 우표는 4장 우표 3블록과 화살표와 고유번호가 들어간 8장 우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다.

‘브리티시 가이아나 2센트’ 우표도 10억원을 호가한다. 1852년 발행된 이 우표는 현재 26장이 남아 있다. 발행 당시 2센트는 장미색으로, 9센트는 초록색으로 발행됐는데, 이 희귀한 2센트 우표는 장미색이 아닌 밝은 파랑색으로 인쇄됐다. 현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2센트 우표 중 밝은 파랑색으로 오류인쇄가 된 것은 26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Post Office 대신 Post Paid로 잘못 발행된 ‘모리시어스 우표’를 증명하는 문서도 전

시된다. ‘모리시어스 우표’는 전 세계에 오직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아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 식민지였던 모리시어스는 1847년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담긴 최초 우표 500장을 두 종류로 발행했다. 하지만 1981년까지 확인된 우표는 27장이었다.

‘캐럴라인 공작부인 봉투’는 1878년 중국 최초로 발행된 ‘5 Candarin large dragon’ 우표를 9장이나 붙여 발송한 봉투로 일명 ‘스트링스 오브 펄’로 불리며 17억원을 호가한다. 중국에서 독일의 Countess Caroline에게 발송된 이 편지 한 봉투에 ‘5 Candarin large dragon’ 우표가 9장이나 붙어 있다. 이 봉투는 중국 우취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로 꼽힌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표는 ‘브리티시 가이아나 1센트 우표(마젠타)’로 1856년 영국 식민지 가이아나에서 액면가 1센트로 발행된 우표다.

‘우표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이 우표는 1922년 프랑스 경매에서 3만5천 달러, 1970년 뉴욕 경매에서 28만 달러, 1980년 93만5천 달러에 팔려 최고 경매가를 경신했다. 지난 6월 17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950만 달러(약 97억3천만원)에 낙찰돼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예술로 승화된 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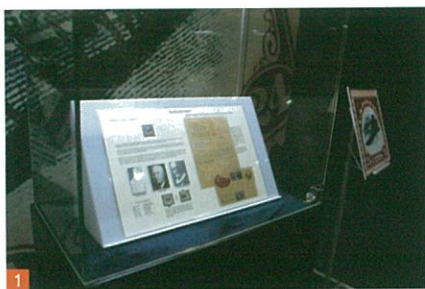
작가 및 일반인이 자신의 개성을 담아 디자인한 다양한 우표도 전시됐다. ‘우표예술관’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우표로 제작해 우표의 예술적 가치를 작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우표미술 콜레보레이션 작품들을 선보였다.



‘우표명품관’에서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소통의 수단뿐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표를 특별히 세공된 보석으로 표현했다.

우체통과 집배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우체통은 1만8060개에 달한다. 1만8천여개의 빨간 우체통에는 손으로 쓴 편지를 비롯해 각종 중요한 정보들이 담긴 편지가 담기는데, 이를 수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집배원이다. ‘우체통&집배원’ 전시에서는 세계의 우체통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의 우체통이 많은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시기간 동안 매일 1회 공연된 창작 뮤지컬 ‘두근두근 우체통’은 현재의 디지털 문화에 우표와 편지의 따뜻한 감성을 부여해 온 오프라인의 조화를 특히 강조했다.🌀



1. 10억원을 호가하는 뒤집힌 제니 우표
2~3.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기념우표와 우표가 만들어지기까지 색별 교정지
4. 한국우정130주년 기념관
5. 전시기간 동안 매일 공연된 창작 뮤지컬 ‘두근두근 우체통’